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잘 봐둬라 지도다



파미르는 파가 많아서 파미르일 거다
파밭에 지도가 한 장 그려져 있다

우선 산이나 강을 그려서 중심을 잡고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그려 넣고

큰 어른이 사는 곳
사냥하기 좋은 곳
그리고 우리 동네도 표시해 놓는다

그런데 진짜 지도일까?
상징적 의미일까?
누가 암호를 풀 수 있을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싸이말루이 따쉬에는 지도처럼 생긴 암각화가 많다. 이런 암각화에는 우선 높은 산이나 깊은 골 그리고 강을 기본적으로 그려 넣고, 길도 표시하고, 동물이 많은 곳, 사람들이 사는 곳, 또는 부족들의 상징 기호 같은 것도 표현하였다. 꼭 지도처럼 생겼다. 그런데 지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과 통하는 통일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제각각이다. 숫자도 너무 많다. 어쩌면 지도가 아닌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곳은 부족의 성지(聖地) 같은 곳이라서 일생에 꼭 한 번은 방문해야 하는 소원이나 의무가 있었다든지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아주 먼 곳에 살지만 여기에 꼭 다녀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이 걸려서 여기에 도착했을 수 있다. 이왕 나선 길이니 온 가족을 대동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이동하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다 가져왔을 것이니, 결국은 삶의 모든 것이 이동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곳에 도착하는 일이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면, 그 과정을 기념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두고 싶었을 것이다. 만약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집 저집이 사정이 같을 것이고, 기념하는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통이 발달한 요즘에도 여행을 가거나 하면 작은 일도 사진을 찍어 기념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이동이 훨씬 어려운 시절이니 더 소중한 마음으로 역사를 기록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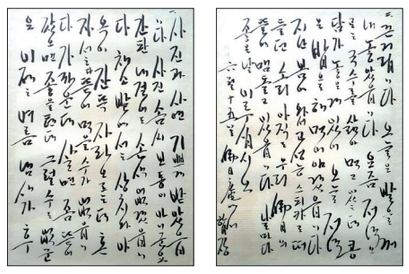
*파미르 –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 위치하는 고원이다. 현재도 고갯마루에는 야생 파가 자생하고 있다. 달마 대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총령(蔥嶺) 고개를 넘어가는데, 파가 많은 파미르 어디쯤을 넘은 듯하다. 총(蔥)은 파를 뜻한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⑱ 법정 스님 1

'무소유'로 모두 깨어있게 한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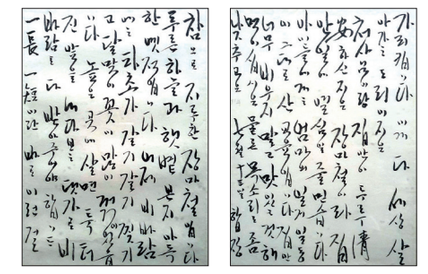


〈서신 1〉

사진과 사연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진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간판 내 걸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채소밭에서는 상치와 아욱이 잔뜩 자라 오르는데 혼자서는 다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데 살면 좀 뜯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군요. 이제 여름 냄새가 후끈거립니다. 오늘은 발을 꺼내 걸었습니다. 요즘 저녁으로는 국수를 삶아 먹고 있는데 콩 담가 놓은 게 있어 오늘 저녁은 밥을 해 먹어야겠습니다. 지난봄에 와서 고성능 스피커로 떠들던 소리 아직도 우리 불일의 뜰에 맴돌고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십시오. 6월 15일 불일암에서 합장

〈서신 2〉

참으로 지루한 장마철입니다. 푸른 하늘과 햇볕 본지 아득한 옛적입니다. 어제 비바람에는 파초가 갈기갈기 찢기고 달맞이꽃이 많이 꺾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살면 툭 터진 앞을 내다보는 대가로 비바람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일장일단이란 바로 이런 걸 가리킵니다. 이게 다 세상 살아가는 도리이지요. 처사님이랑 집안이 두루 청안하신지요? 장마철이라 집안일에 열심일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일거일동이 그대로 산교육입니다. 집안 너무 비우지 말고 맛있는 것 해 먹이십시오. 물론 목소리도 좀 낮추고요. 7월 13일 합장



법정 스님을 뵙기 시작했을 때, 나는 20대였고 스님은 30대였다. 지금에서 생각하니 스님이나 나나 눈부신 시절이었다. 삶 자체가 눈부신 것이긴 하지만 지금과 많은 것들이 달랐던 그때를 돌이켜보면 늘 가슴이 뛴다.

스님은 우리나라 현대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식 중의 선지식이라고 생각한다. 한 시대의 대중을 화두 하나로 깨어있게 한 스승이셨다. 비록 그때의 가르침이 아직도 인류 대중에겐 요연한 일이지만 한 시대가 그렇게 지나간 것에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제 또 그런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한 시대가 공유할 수 있을까.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두드렸던 그 가르침을 새삼 떠올려본다.

그렇게 한 시대의 어른이었던 스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었다는 것과 주고받은 서신이 남아 있다는 것이 내겐 더 없이 영광이고 기쁨이다.

스님과 주고받은 서신 속에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속엔 드러내지 않은 스님의 인정과 가르침이 들어있다.

〈서신 1〉은 언젠가 스님을 뵙고 돌아와 사진과 함께 올린 서신에 대한 답신이다. 텃밭의 풀 한 포기를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셨을 스님을 떠올려본다. 한 시대의 화두였던 '무소유'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도 '인류애'가 아닐까. 국수를 삶고 콩을 담고 밥을 짓는 일에 삶을 두었던 하루하루가 큰 가르침인 것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서신 2〉는 어느 해 장마철에 주신 서신이다. 비바람에 파초가 찢어지고 달맞이꽃이 꺾인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스님을 생각해본다. 그 마음이 아직도 철없는 나와는 많이도 다른 것이다.



1981년 6월, 불일암에서 법정 스님(왼쪽)과 필자 대원성.

탈종공고

• 사찰명 : 무애사
• 주 지 : 진 모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낙수정1길 1-2
• 승 번 : 071-0559

위 사찰과 승려 진모는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삼성암
• 주 지 : 진 관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24-3
• 승 번 : 071-0539

위 사찰과 승려 진관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법계사
• 주 지 : 무등 (승번 : 071-0535)
벽암 (승번 : 071-0619)
• 주 소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1길 7-10

위 사찰과 승려 무등, 벽암 2人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